

문화 “불음 통한 전법 여행 하고파” ... 중생 위로하는 음악방송 계획

찬불가수 수안 스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내 마음과 같아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넘쳐난다면 나는 아마 자유롭지 않을 거야. 어디를 가든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혼자 웃는 시간은 존재할 수 없을 거야.”

수안 스님의 ‘참 다행이다’ 中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슬퍼하지만 수안 스님(前 백양사 포교국장)은 나와 내가 달라서 참 다행이라고 말한다. 제 각각 다른 모습에 다른 생각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을까? 노래하는 음악인 수안 스님은 이처럼 일상의 깨달음을 노래로 말해준다.

3년전 백양사 포교국장 시절 노래로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던 수안 스님은 올 여름 첫 음반 ‘길을 떠나며’를 발매했고 지난 10월에는 광주에서 콘서트도 열었다. 스님이 노래를 부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포교 현장 곳곳에서 일하며 젊은이들을 위한 포교를 결심했죠. 그러면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노래를 떠올렸어요.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고 젊은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음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일부터 어려운 불교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노래를 듣는 대중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바랐죠.”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 산하 대학생 전법단 사무국장 소임을 맡으면서 대학생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일이 많았다. 또한 헤민 스님과 명상 콘서트 투어도 같이 다니며 취업문제 등에 지친 대학생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법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방향하게 되면서 절에도 나가지 않던 적도 있었죠.



문화 포교의 원력을 세운 수안 스님은 노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불음을 전하고 있다.

백양사에서 노래로 템플스테이 열을 7월 첫 음반 ‘길을...’ 발매 광주 BBS서 ‘무명을 밝히고’ 진행 모바일 활용한 불음 콘텐츠 구상중

그때 생각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포교를 위한 원을 세웠죠.”

스님은 이른바 문화 포교의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결심 하자 스님의 숨겨진 재능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작사를 했고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작곡하니 네 곡이 완성됐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해주기도 하고, 겨울을 건너야 새봄에 잎을 피울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내용이 노래에 담겼다. 이렇게 스님의 뜻이 알려지자 주변서도 함께하기 시작했다. 지역가수 인디언수니가 곡을 주었고 류근 시인이 가사를 써주는 등 주변의 지지를 적극 받아 지난 7월 드디어 첫 앨범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어 10월 31일 광주 전문 라이브 공연장 보헤미안에서의 첫 공연도 성황리에 마

쳤다. “소규모 극장이지만 관객들이 다 못들어올 만큼 객석이 꽉 찼어요. 이후 크고 작은 불교 행사에 초대되기도 하고, 병원 요양시설 등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니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 전법의 길에 나섰듯이 저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불음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스님은 세상의 멘토가 되어 대중들의 고민도 함께 들어주고자 한다. “대중들의 고민을 함께하는 것도 스님의 역할이라 생각해요. 앞으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자리를 마련해 대중들의 진정한 멘토가 되어 주고 싶습니다.”

현재 광주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진행자이기도 한 스님은 팟캐스트 등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한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찬불가뿐만 아니라 가요 중에도 좋은 노랫말이 정말 많잖아요. 음악을 해설해주고 여기에 얽힌 인생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모바일 음악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불교계 전반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통한 포교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정혜숙 기자 bwjhs@nyunbul.com



지난 10월 31일 광주에서 열린 수안 스님의 첫 콘서트 현장



음반 ‘길을 떠나며’ 표지

쌍계 건너 몇 개울이 놓였을까?

범패와 차 역사가 시작된 곳

하동 쌍계사는 지리산을 대표하는 고찰 중 하나다. 722년 대비(大悲)와 삼법(三法) 두 스님이 당나라에서 육조 혜능 스님의 정상(頂相)을 모시고 와서 옥천사(玉泉寺)를 창건한 것이 오늘날 쌍계사의 연원이라고 전한다. 정상은 정수리 뼈 즉 사리의 일종이다.

840년 진감(眞鑑) 선사가 당나라에서 신감(神鑑) 선사의 법을 잇고 돌아왔는데, 옥천사 옛터에 옥조 스님의 영당을 짓고 절을 확장했다. 또 진감 선사는 이곳에서 범패를 가르쳤는데 그 소식을 들은 스님들이 구름같이 몰려왔다고 한다. 그로부터 쌍계사는 대찰의 면모를 이어왔을 터이나 많은 사료가 전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쌍계사는 최근에 총림으로 지정되어 그 역사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치원이 글을 짓고 글씨를 쓴 진감국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를 비롯 9점의 보물과 20점의 지방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패가 시작된 곳이고 차 재배가 이루어진 곳이란 점에서 쌍계사는 남다른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쌍계사 진감국사대공탑비는 최치원의 사산비명 중의 하나로 그 문체와 서체 모두가 매우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절 입구 큰 바위에 새겨진 ‘쌍계석문(쌍계석문)’이라는 글씨도 최치원이 쓴 것으로 전해져 쌍계사 시문(詩文) 가운데는 최치원과 관련된 시문이 많다. 물론 지리산이라는 명산을 배경으로 하는 쌍계사는 산천경관을 유람하는 선비들에게도 각광받는 코스였다.

불일직부전장계(佛日直俯千丈磯) 한애초벽재유로(寒崖 蹊 有路) 풍진불도연하로(風塵不到烟霞老) 동부창장석색고(洞府蒼蒼石色古) 동망향로폭포수(東望香爐瀑布水) 비류탄쇄섬여무(飛流亂灑深如霧) 백일회미홀처창(白日晦迷忽悵愴) 천풍삼삼취비무(天風颯颯吹飛雨) 학사구적정태몰(學士舊跡靑苔沒) 진결불전심독고(眞訣不傳心獨苦) 학거산공일월심(鶴去山空日月深) 사야묘연사현포(使我杳然思玄圃)

불일봉 올라서 천 길 계곡 굽어보니 찬 비탈 험한 비랑 길 겨우 나 있더라. 세상 풍진 이르지 않고 안개만 자욱한데 아득한 골짜기에 돌 빗만 예스럽네. 동으로 향로봉 폭포수 바라보니 어지러이 뿌리는 물 질은 안개 낀 듯하네. 대낮도 어두우니 마음 문득 쓸쓸하고 높은 바람 술술 불어 비를 불어 날리누나. 학사의 옛 자취 이기 속에 묻혀 있고 참 비결 전하지 않으니 마음만 괴롭구나.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는 선비의 詩心

49 쌍계사 ①



쌍계사 진감국사탑비. 남효운은 최치원의 진감국사대공탑비문을 읽고 난 순회를 장시로 남겼다.

학은 가고 빈 산에 세월만 깊으니 내 마음 아득히 현포를 생각해 하네.

미수(眉 許穆 1595~1682)의 문집 <미수기언(眉 記言) 별집 제1권에 수록된 이 시는 허목이 쌍계사와 지리산을 답사하며 썼다. 그래서 제목의 자리에 “경진년 9월 3일에 화개동(花開洞)으로부터 쌍계사 석문을 보고 이어 불일봉(佛日峯)에 올라 청학동(靑鶴洞) 폭포를 구경하면서 느낀 회포를 쓰다”라고 적혀 있다.

시는 지리산의 장관을 두루 관망하며 신선의 세상을 그려보는 시심을 수려하게 드러내고 있다. 후반부의 ‘학사의 옛 자취’는 최치원을 말하는 것인데, 최치원 역시 가야산에서 신선이 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

문장으로 남아 있는 최치원의 행적

남효운(南孝溫 1454~1492)은 최치원의 진감국사대공탑 비문을 읽고 난 순회를 30구의 장시로 남겼다. 그의 문집 <추강집> 제2권에 실린 ‘쌍계사 비문을 읽고’의 후반부를 보자.

차방문자자공시(此邦文字自公始) 청구학사공위수(靑丘學士公爲首) 팔영루평장죽간(八詠樓平長竹竿) 중정락엽일슬후(中庭落葉一膝厚) 청학고비고연공(靑鶴高飛故瀾空) 쌍계석풍초림망(雙溪夕風抄林莽) 오가문장비장재(吾家文章非長才) 찬인공교줄구부(讚人工巧拙鳩婦) 승운공덕부가묵(僧云功德不可默) 강위각화무염주(强爲刻畫無鹽醜)

이 나라 문장이 공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나라 학사 중에 공이 첫머리라네. 팔영루는 평평한데 대나무 가지 길고 뜰 가운데 낙엽은 무릎까지 쌓였구나. 푸른 학 놀이 날아가 옛 못 비었는데 쌍계의 저녁 바람 나무숲을 스쳐 가네. 나의 문장 솜씨는 훌륭한 재능 아니라 남의 재주 칭찬하기엔 서투기 그지없네. 공의 덕목 말할 수 없노라 스님이 말하며 더없이 못난 글귀를 억지로 새기누나.

시편에 드러나듯 남효운은 최치원의 글과 글씨에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딘 글씨주로 칭송하기조차 부끄럽다는 경감을 보인다.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1564~1635)의 경우 쌍계사의 스님들과 교류가 많았던가 보다. 그의 문집 <월사집> 제18권에 쌍계사를 그리워하는 시가 보인다. ‘지리산 승려 의준(義俊)의 시속에 적힌 시에 차 운하여 산으로 돌아가는 그를 전송하다’를 제목으로 두수가 수록됐는데 앞의 절구 한 수가 빼어났다.

천재고운대필제(千載孤雲大筆題) 추풍귀흥일고려(秋風歸興一枯藜) 오지만학정류처(遙知萬壑爭流處) 도진쌍계우기계(渡盡雙溪又幾溪)

천년 전 고운이 대필로 써 두었으니 가을바람 부는 이때 다시 가고 싶구나. 멀리서도 안다네 일만 계곡다투어 흐르는 곳. 쌍계를 건너면 또 몇 개울이 앞에 놓였을까.

www.withbuddha.co.kr

이야기가 있는 불교 종합쇼핑몰

위드분다

위드분다만의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HANDMADE상품
국내불교작가들의 배어난 불교미술작품들을 매주 업데이트!

다양한 불교용품과 아이디어 넘치고 실용적인 불자용품
우수한 품질과 실속있는 착한 가격, 그리고 다양한 혜택
편리한 구매와 끝까지 책임지는 안전한 배송

항상 새로운 만족을 드리는 불교전문 종합쇼핑몰

네이버와 다음에서 위드분다를 검색하세요.